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출애굽기 · 누가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충현의 만나

2003

가정예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출애굽기 · 누가복음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2월의 가뭄



겨울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네 삶 때문에, 겨울 가뭄이라는 말은 언제나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겨울 가뭄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문득 시편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영혼을 흔들어놓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시 12:1).

경건한 자가 사라져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져가는 까닭에 이 세상에는 영적인 기근이 목마름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시 12:2,4).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침하는 입술을 가지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리고 혀와 입술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천박스런 자들로 인하여 세상에 참된 생수가 메말라갑니다.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시 12:6).

그러므로 진실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리울 수 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말을 절대로 믿을 수 없기에, 진실한 주의 백성들은 순결하고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은 여호와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소서,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여!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네 심령에 부으사, 영혼의 목마름 해갈시켜 주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003년 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누가복음 서론

본 서에는 저자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본 서와 저자가 동일한 사도행전에 누가 본 서의 저자임을 암시하는 기록이 곳곳에서 발견된다(행16:10-17; 20:5-21).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가정 형편이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본 서에 나타난 역사적 치밀성이나 신학적 통찰력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한 학문적 수업을 쌓은 지성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의술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본 서의 기록 연대에 관한 기록은 여러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A.D. 60-70년 경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가 마가복음에 의존하여, 마가복음의 기록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인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본 서는 마가복음의 기록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아진다. 본 서의 서론(1:1-4)과 사도행전(8:20,21) 및 본 서의 주제와 전체적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서의 기록 목적은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① 누가는 개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했던 로마의 고위 관리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고자 했다(1:1-4). ② 누가는 더 나아가 많은 이방의 지성인들에게 복음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후에 뒤 따르는 구원의 확실성을 전달하고자 했다. ③ 누가는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종교로서 활발히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본 서를 통해 복음 전파의 합법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④ 누가는 종말론에 관련된 문제나(12:49-59) 빈곤(14:12-14)과 부(16:1-31), 또는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5:27-39)을 주제로 사회적인 문제들을 두루 다룸으로써 각계 각 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본 서를 기록했다.

본 서는 위와 같은 기록 목적과 함께 몇 가지의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명백히 밝혔다(1:26-33).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행위, 베드로의 신앙고백,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언급함으로써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누가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예

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곧 복음이 만민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롬 9:24). 또한 누가는 다가를 심판에 대한 경고(12:40), 인자의 재림에 대한 묘사(17:22-37), 그릇된 종말관에 대한 경고(17:20,21)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현재에도 그의 구원 사역을 실제로 행하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11; 4:21; 5:26; 12:28; 13:32; 22:4,61; 23:43 등).

본 서는 내용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누가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치밀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자(人子)이신 예수님을 특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타 복음서에 비해 기쁨(Joy)의 주제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메세지(2:10), 예수 승천 당시 제자들의 큰 기쁨(24:52) 등에 잘 나타난다. 이 밖에도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억압받는 위치였던 여성들이 본 서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있다(7:11-16; 8:43-48; 10:38-42). 또한 성령과 기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주권도 강조되어 있다(7:13,19; 10:1).

내용분해

제1부 : 인자에 대한 소개/1:1-4:13

1. 예수 탄생과 관련된 사건/1:1-2:38
2. 예수의 출현에 앞선 사건/3:1-4:13

제2부 : 인자의 갈릴리 사역/4:14-9:50

1. 예수의 출현과 권능/4:14-5:26
2. 예수의 교훈/5:27-6:49
3. 예수 사역 발자취/7:1-9:50

제3부 : 인자의 배척/9:51-19:27

1. 예수에 대한 배척 증대/9:51-11:54
2. 배척당하며 베푸신 교훈/12:1-19:27

제4부 : 인자의 수난과 부활/19:28-24:53

1. 예수의 마지막 한 주간/19:28-23:56
2. 인간 앞에서 증거 되는 인자/24:1-53

29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 위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에 앞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 받아야 했는데, 위임 절차는 크게 5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옷을 입는 부분인데(1-9절) 그 옷은 28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아주 화려합니다. 둘째는 그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고(10-14절), 셋째는 번제를 드리는 부분이며(15-18), 넷째는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부분이고(19-37절), 다섯째는 상번제를 드리는 부분입니다(38-46절).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 자체가 복잡한 것은 그들의 직분이 매우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위임된 제사장들만이 제물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위임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지치고 죄로 인해 낙망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30장은 분향할 단에 대한 내용(1-10절), 물두멍에 대한 내용(17-21절), 관유에 대한 내용(22-33절), 향에 대한 내용(34-38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앞에 두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사르도록 했는데, 향이 주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계 5:8, 8:3-4) 이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성도의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바깥출입으로 더러워진 부분을 씻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20절). 물두멍 규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지녀야 하는 깨끗한 삶과 성결한 마음 자세를 상징하며, 또한 물두멍 안에 담긴 물은 인간의 온갖 죄악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기 위해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요 19:34, 계 7:14). 그리고 관유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발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26-30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는 기구와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성별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얼룩진 상태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사 59:2).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정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3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1절까지는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을 만들 자를 지정해 주고, 그들에게 만들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부분이고, 12-18절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엄한 규례를 언급하고, 안식일을 지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만들 사람들을 지명하십니다.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지혜롭다고 추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더불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3절).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될 때, 순종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은 계속해서 성막과 성막기구들에 대해 설명하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안식일 규례입니다(12-18절).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언급한 안식일 문제가 왜 갑자기 다시 등장합니까? 이것은 까다로운 모든 규례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행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법을 떠날 때는 참된 안식이 없고 죽음밖에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 동행하십시오. 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그의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담이 아닌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32장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범죄하며, 7-14절은 언약관계를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15-29절에서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레위 지파와 함께 우상 숭배자를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 회중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제거하고, 30-35절에서는 두 번째로 산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본 장에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결핍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라(요 4:24)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이방신의 하나쯤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의 욕구만을 채워주는 우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知), 정(情), 의(意)를 지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영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을 또한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해주옵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3천 명 가량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되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이용하여 죄를 자꾸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고전 10:9).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가데스바네아에서도, 시내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때에도 불평을 합니다. 그 때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원망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불평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이용하여 죄를 자꾸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이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로 인하여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세에게 두 개의 돌 판을 만든 후 시내 산에 다시 오르게 하셨습니다(2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속성을 계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맺은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는 과거의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특별히 우상숭배를 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도 바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14절).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언약을 맺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30절).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덧입은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막 제작에 앞서 다시 한 번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재차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로 분주해져서 자칫 안식일에 소홀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하에 하나님 만나는 것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분을 만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일까지도 금하신 것입니다(3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도 준비해 주셨고 또 일을 행할 일꾼도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일들에 쓰일 각종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필요를 말하고 그들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때에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즐거이 드리며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막 건축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성막 건축에 백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성막 건축은 미루어졌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행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할 마음이 있습니까? 일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제 성막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할 일꾼들이 일을 시작하였고 백성들도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날마다 자원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은혜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난날 자신들의 금패물을 가져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성막건축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의 마음에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물질은 모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로부터 받았던 것들입니다(출 12:36). 출애굽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애굽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내어 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물질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게 하신 것들입니다(신 8:18).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성막의 각 부분 부분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구속의 계시를 성막에 나타내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올 때, 그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에서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 서 말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막 본체를 제작한 앞장에 이어서, 본 장은 그 성막 본체 안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각종 기구의 제작을 보여 줍니다. 법궤와 떡상, 그리고 등대와 분향단의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법궤는 성막의 기물 중 가장 핵심적인 성물이요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는 속죄소로 불리는 시온소와 두 그룹, 그리고 법궤를 메고 이동시킬 수 있는 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중에서도 속죄소를 만드는 장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소가 식양이 복잡해서 라기보다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출 25:22)였을 뿐만 아니라 대 속죄일에 속죄를 상징하는 피를 뿌리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레 16:14-17). 이러한 의미에서 속죄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골 1:20).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만나주시며 또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롬 3:25).

그리고 떡상의 제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뜻으로 그들의 지파수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항상 진설해 놓았습니다(레 24:5-8). 그리고 이 떡들이 상으로부터 밀려나지 않도록 떡상 사면에는 손바닥 넓이의 턱이 있었습니다(12절).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 중 한 사람도 밀려나지 않고 다 하나가 되도록 당신의 품안에 보호하사 품고 계심을 연상케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요 17:12).

기도 제목 / ① 주여!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 뜰에 배치될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 뜰의 포장을 제작합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번제단과 그 위에서 불살라지는 제물은 모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의식을 행하기 전에 정결 예로서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두멍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상징합니다(요 3:5). 마지막으로 제작되는 성막 뜰을 이루는 포장에는 유일하게 문이 하나 있습니다(출 27:16). 이 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요 10:9). 이로써 성막의 제작 자체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부는 지금까지 성막을 제작한 책임자들과 제작에 소요된 재료의 품목과 수량과 경비를 기록합니다.

본문의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원하여 그 많은 예물들을 성막 건축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아 관리했던 자와 성막을 건축하는 자가 온 힘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제사장의 의복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역을 담당하는 데 어울리는, 구별된 복장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서는 평상복과는 다른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입혀 주신 피 뿌린 옷을 가리킵니다(1-7절). 제사장옷의 가슴부분에 있는 흉패는 예물을 떠나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요 15:9,10).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21절). 대제사장이 쓰는 관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정금패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31,32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갈 3:27)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유행과 풍습 가운데서도 끝까지 흰 옷(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계 3:4).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느니라”(갈 3:27).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란 의미입니다. 본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봉헌식이 마감 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앞에 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B.C 1400년경 광야에 세워진 성막, 이 성막은 그 후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그 모습이 변모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 결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의 성막을 짓고, 봉헌하며,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과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의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은 머리를 숙여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매 순간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누기는 근원부터 살피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세례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제사장의 계보에서 태어나도록 하심으로 구약까지 연결시키십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의 늙은 두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었지만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크나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금욕과 자기 절제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널리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5-25절).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동녘에 떠오르는 아침 해와도 같습니다(78절).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죄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의 장막에 갇힌 죄인은 예수님을 통해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구원의 별”(69절)이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과 공생애,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룬 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변경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조차도 바꿀 수 없습니다(롬 8:38-39).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놀랍고 은혜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는, 복음에 빛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죄인의 “구원의 별”이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에 빛진 자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미 5:2)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관방 하나 양보 받을 수 없는 각박한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고후 8:9).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6,7절). 목자들의 기쁜 소식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19절).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입니다(눅 1:27-38).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는 주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시므온과 안나 같이 간절히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어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29-32절).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함으로 재림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경건한 자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나에게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1-21절)과, 예수님의 죽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23-38절). 따라서 본 장의 내용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는 회개하여 심령의 변화를 받고, 나아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과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선결 과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사 59:2). 그리스도인의 종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얼마나 대접받는 위치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주인으로, 자신을 주인의 신들매를 매고 푸는 종으로 알고(16절)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국 세례요한은 담대히 복음을 외치다가 절대 군주 헤롯 안디바의 칼날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지위 고하, 남녀 불문하고 모든 사람 앞에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는 회개하여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세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도록.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사건(1-13절)과, 초기 갈릴리 사역을 통해 놀라운 권능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 있게 전파하는 장면(14-44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잠시 사단의 지배 아래 맡겨 두셨습니다(엡 2:2). 사단은 고난과 고통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제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라이므로 결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8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 즉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와 용서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나 자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율법의 멍에에 눌려 있습니까? 죄책으로 고민하십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그럼,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18,19절). 그리스도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러 오신 분입니다. 또한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소외된 자, 외로운 자,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귀신들린 자, 죄책감 때문에 고통하는 자, 정신질환자,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면 사단은 결코 저항할 수 없습니다(35절).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마귀의 권세가 막강하지만 주님의 권세를 힘입은 성도 앞에서는 패잔병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예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하시기 위해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모습, 그리고 당시 동족들에게 배척받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금식의 준수에 대해서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8,11절). 이러한 헌신적 결단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최우선의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예수님의 치유사건의 근본적인 목적이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의 신성 및 전하시는 복음을 증언하는 산 증거로 베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23-24절).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서는 동족들의 미움과 질시를 받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심을 통해 자신이 죄인의 구주요 친구임을 보여주십니다(27-32절). 끝으로 예수님께서서는 형식과 외식주의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에 선포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 주셨습니다(33-39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자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 제목 / 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생각과 뜻을 주님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5-7장)과 평행을 이루며 본문 17절의 '평지에 서시니'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일명 '평지수훈' (Sermon on the plain)으로 불리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 및 기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새 법(法)으로 주신 교훈을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의 본질을 무시하고 형식만 고집하는 오류를 지적하시고 자신이 제2위 하나님인 성자요, 메시아(Messiah)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1-11절).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전파할 복음의 헌신된 봉사자인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하기 위해 밤새 기도하셨습니다(12절). 이 사실은 사도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12-16절). 끝으로 주님께서서는 주님이 전하는 천국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이 행한 구속사역의 은혜를 입은 천국백성들이 본 보여야 할 '사랑의 삶'을 말씀하십니다(17-49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세상 도덕이 아니라 세상 끝 날에 영생과 영벌이 판가름 날, 그야말로 진리(Truth)와 생명(Life)의 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주초 없이 흠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될 것인지,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 / 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신 사건, 한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 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병, 죽음,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메시아이심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병든 종을 치료해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10절). 다음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인 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14절) 살리신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11-17절). 이어서 예수께서는 '그가 진정한 메시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세례 요한에 대해 구약에 메시아의 표적으로 제시된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한 그것이 자신에 의해 성취되었음을(사 35:5-6절 성취) 선포하고 있습니다(22절). 또한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 종교지도자들의 교만을 풍자하며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29-35절). 마지막으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인자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36-50절).

한 여인이 자기가 가장 아끼던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서 그것을 깨어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비록 향유가 매우 값비싼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용서와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많이 탐감 받은 자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수종을 들며 재정도 지원했던 여인들의 이름과 행적을 소개하며(1-3절), 중반부는 주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고(4-21절),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22-56절).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 자세의 중요성을, 등불의 비유를 통해 복음을 들은 자는 마땅히 그의 들은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이어서 이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4-21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본문은 믿음이 세상의 어떠한 것, 심지어 혈육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신 예수께서는 이제 네 가지의 신적 권능(풍량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군대 귀신들린 자의 치유, 야이로의 간청과 혈루증 걸린 여인 치유)을 통해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제자들로 확증케 하고 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22-56절).

본문에서 누가는 주님의 사역을 섬긴 여인들을 소개함으로 세상에서 비천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의 믿음을 본 받읍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주께서 북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남부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을 개시하기 시작하신 전환기적 시점의 여러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했으며,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예수님에게 있어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마 16:16),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요 6:68-69).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혁명가로, 혹은 위대한 윤리 교사나 사회 개혁가로, 혹은 천국의 임박을 믿었던 한 묵시가요 예언자로...,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18-27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즉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현실적 고난과 핍박까지도 감내하는 적극적 신앙 태도를 갖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23절).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70인 제자의 전도 파송사건(1-24절)과 성도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율법사에게 이웃의 개념을 선택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25-37절), 주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여 주님과 성도사이에는 외적인 봉사나 공로보다 먼저 주의 복음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며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38-42절).

본문에서 복음의 비밀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는 알 수 없으며, 오직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21절). 이어 예수께서는 참된 이웃이란, 사람이 규정하고 한정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기에 앞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참 이웃이 되어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쳐 줍니다(28, 37절). 끝으로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육적 문제보다 영적 문제가, 그리고 주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외적 형식이나 결과보다 주님의 복음을 향한 순수한 사랑 자체가 우선적으로 요청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39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먼저 추구할 것을 엄히 명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물질적인 헌신도 요구되지만 먼저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나서, 이와 함께 여러 차원의 봉사도 나타나야 함을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복음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기도 제목 / ① 복음 자신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② 감기엽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와 자세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1-13절)과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권세가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14-28절), 그리고 불의한 세대를 향한 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29-36절) 및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37-54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첫째,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단의 왕국은 “더 강한 자” 예수에 의해 무너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냐, 바알세불과 함께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7-26절). 셋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캄캄한 영안, 눈 먼 영안으로서는 도무지 진리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밝고 성한 영안이 있을 때만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온 인격과 심령과 영혼이 순전하게 밝아진다는 것입니다(33-36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암송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 담긴 참뜻을 망각한 채 마치 무슨 주문인 것처럼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읊조리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된 의미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자신을 보게 하소서. ②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 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영위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1-13절). 아울러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가르치셨으며(14-34절), 종말의 때가 임박했으니 깨어서 근신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35-59절).

결국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장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야말로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위선과 외식에 찬 생활을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또한 세상의 물질의 풍요와 안락함에 집착하지 않도록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생활 자세를 견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필요를 적절히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날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주리고 목마른 자이면서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가올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깨어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의 소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1-9절)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통해서 참된 구원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교훈(10-17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비유(18-30절)를 통해 천국의 특징과 천국에 이르는 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 장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회개를 촉구하시는 선지자, 심판을 경고하시는 심판주, 귀신의 권세로부터 병자를 치유하시는 영적 의사,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선생,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실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14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보다 회개를 통해 구원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사랑이 더 큼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6-9절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로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무릇 회개하지 않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를 명령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아무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 눅14장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어떤 지도급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교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1-24절). 그리고 둘째 단락은 바리새인의 집을 떠나 군중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으로서, 주로 제자도(25-35절)에 관한 내용이 소개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5-35절을 살펴보면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에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진정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종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및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사는 도중에 자기의 인간적 소욕과 생각과 고집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정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가 높은 자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낮아지는 연습을 통해 천국생활의 원리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 / ① 진정한 자기부인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② '총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 15장은 당시 경멸의 대상이던 세리들과,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 당하던 부류의 인물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 장에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즉 잃은 양의 비유(1-7절)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8-10절), 그리고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잃었던 아들의 비유(11-32절)입니다.

잃은 양 비유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자신의 집으로 이끄는 데 사용하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등불을 켜는 것은 곧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돌아온 아들의 지난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속자로서 대접하여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무지개처럼 수놓아져 있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은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다시 찾으려고 끝까지 거칠은 사막과 들판을 헤매는 목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목자의 심정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품에 있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한 천국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볼 수 없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2가지 비유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1-13절)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19-31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14-18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의 풍족함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로만 생각하거나, 반대로 재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해야 될 사악한 것으로 여기는 양극단의 입장을 동시에 배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물은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특히 가난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던 당시의 사고 구조를 뒤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재물 그 자체가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의 참된 것보다 소멸될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므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부요하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세 중심의 사람은 내세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죽음 직전까지 이 세상 재물을 쫓았습니다. 혹 우리에게 이처럼 의지하고 아끼는 세상의 그 무엇이 없습니까?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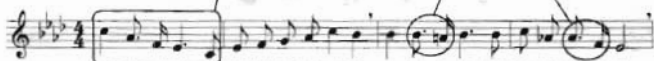
증거되는 복음

• 찬송 / 277장(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 본문 / 행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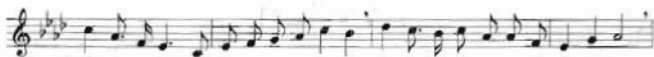
선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느낌이
처져서는 안됩니다.

조금 빠르게 ♩ = 100

이 찬송에 자주 쓰이고 있는
벗집 리듬을 잘 살려서 노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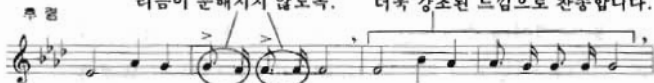
1. 흑 암 에 사 는 백 성 들 을 보 라 수 많 은 심 령 멸 망 하 겠 네
2. 구 원 의 문 은 넓 게 열 렸 으 니 심 자 가 군 병 일 어 나 거 라
3. 왜 너 는 멸 망 길 을 가 려 느 나 주 음 성 들 고 응 답 하 여 라
4. 온 천 하 만 민 승 리 의 그 날 에 영 광 과 찬 송 주 께 드 리 네



그 누 가 갈 가 주 의 복 음 들 고 생 명 을 구 원 하 는 곳 으 로
너 희 의 힘 을 하 나 로 뭉 처 서 죄 악 의 쇠 사슬 을 끊 어 라
널 구 원 하 려 예 수 죽 었 으 니 생 명 의 이 복 음 을 전 하 라
속 죄 함 입 어 구 원 받 았 으 니 기 뻘 게 할 헬 루 아 부 르 세

연속으로 나타나는 벗집
리듬이 둔해지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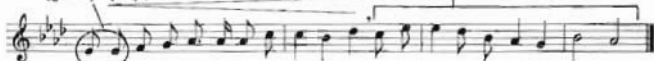
두 번째 반복되는 부분이므로
더욱 강조된 느낌으로 찬송합니다.



큰 권 세 주 께 있 으 니 큰 권 세 주 께 있 으 니

벗집으로 노래하지
않도록 주의!

절정을 이루며 마무리.



너 는 가 서 주 의 복 음 전 하 라 주 가 너 황 상 지 키 리 라

돌어가면서(서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와 교회의 회중들을 향하여, 구속의 좋은 소식이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명령을 위임하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명확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규모나 재정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교회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대한 임무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선교를 그들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들은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재정 가운데 소수의 비율을 선교 명목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주된 관심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또는 우리 나라 주변에,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 끝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배우다.
- ② 선교의 본질에 대하여 배우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사도행전 1장 1절~11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를 이해함으로 본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1절~2절 - 기록하였노라

② 3절 - 하나님 나라의 일

③ 4절~5절 - 기다리라, 받으리라

④ 6절~8절 - 내 증인이 되리라

⑤ 9절~11절 - 본 그대로 오시리라

2. 다음주일 설교('중거되는 복음')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충현교회의 존재 목적' 단원을 읽고, 충현교회가 제시한 선교에 대한 사항들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선교 대상이나 사역원칙, 파송 등 충현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에 대하여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여 자유롭게 말해 보십시오).

② '삶을 변화시킴' 단원을 읽고,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6절을 참고로 말해 보십시오.

③ '복음전파에 대한 순종' 단원을 읽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또한 이처럼 선교에 대하여 동참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돌아가면서 각자 말해 보십시오.

④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게 함' 단원을 읽고, 선교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⑤ '성령을 따라서 전해야 함' 단원을 읽고,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⑥ '모든 곳으로 가야 함' 단원을 읽고, 선교지가 '모든 곳'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⑦ '참된 제자로서의 의무' 단원을 읽고, 왜 선교가 참된 제자의 의무인지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교회는 본질적으로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이요, 동시에 '보냄 받은 자들의 모임' 입니다. 또한 선교는 '가는 것' 입니다. 충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모든 곳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에 우리 교회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1,500명 이상의 단기선교사를 보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가실 작정이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한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세상으로 보냄 받기 위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소서.
- ② 선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제 2 과

성도의 안식

• 찬송 / 226장(저 건너편 강 언덕에) • 본문 / 히 4:1~5

보통으로 ♩ = 76

너무 길지 않게 적당한 길이로.

이 찬송에 자주 등장하는 대칭적인
리듬입니다.
정확하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1.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2.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3.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임시표가 붙은 변화음들을
주의하여 찬송합니다.

이 만 그 곳으 렸가 겠네 저 황 금 문들 어 가서 주 님
죄 와 모 든 슬 픔 잊 겠네 주 에 수 의 사 랑 속에 영 원
영 혼 자 유 함 을 얻 겠네 괴 로 운 짐 모 두 벗 고 주 와

리듬이 무너지지 않도록
산뜻하게 시작.

함 께 살 리로 다 너 와 날 위 해 황 금 증 을 린 다
도 록 살 리로 다 너 와 날 위 해 황 금 증 을 린 다
함 께 살 리로 다 너 와 날 위 해 황 금 증 을 린 다

천국의 종소리를 묘사하듯 리듬을 더욱
흥겹게 산여가며 찬송합니다.

저 울 리 는 종 소 리와 천 사 들 의 노 랫 소 리 영 광

다시 처음의 기분으로.

일 세 할 헬 루 아 기 쁘 다 빛 나 는 저 강 건너편 아 름

리듬 산뜻하게.

답 고 영 원 한 곳 너 와 날 위 해 황 금 증 을 린 다

들어가면서(서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생애에 걸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신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히 3:15).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하늘로부터 땅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의 매일 매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입고 사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했던 모든 태도는 하나님을 격노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히 3:16~19).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성도가 얻는 최후의 구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다.
- ②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히브리서 4장 1절~5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를 이해함으로 본문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1절 - '두려워할지니'(안식의 실패의 가능성)

② 2절 - '유익되지 못한 것은'(안식의 실패 이유)

③ 3절 -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안식의 시작)

④ 4절 - '제 칠일'(안식의 구체적 설정)

⑤ 5절 - '또다시'(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2. 다음주일 설교('성도의 안식')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 단원을 읽고, 안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측면에서 유익한 것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② '믿음의 화합으로 얻는 안식' 단원을 읽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의 신자들과의 공통점을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화합(united by faith)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 ③ '속지 말아야 할 것' 단원을 읽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과 관계되어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 ④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 단원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신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말해 보십시오(고전 1:9, 히 6:16~18 참조).

⑤ '순전한 마음을 필요로 함' 단원을 읽고, 마음의 원망과 원고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지 이스라엘의 경우를 들어서 말해보십시오(시 95:9~11 참고).

⑥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단원을 읽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야만 합니다. 만일 신자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예수께 초점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은 그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주인이요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를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실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소서.
- ②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 ③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게 하소서.

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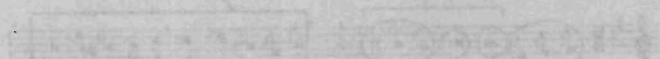
제목 :

본문 :

中国音乐史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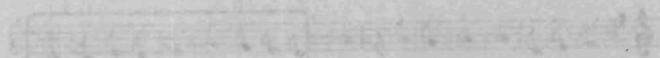
1. 中国音乐史话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中国音乐史话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中国音乐史话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中国音乐史话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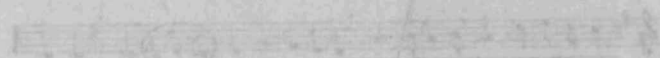
中国音乐史话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中国音乐史话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中国音乐史话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中国音乐史话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中国音乐史话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1954年)

제 3 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 찬송 / 204장(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 본문 / 고후 1:3~11

8분음표 3개를 한 박으로 해서
한 마디를 3박자로 생각해서 찬송합니다.

모듬으로 ♩ = 72

계속적으로 힘과 탄력이 있게
찬송해 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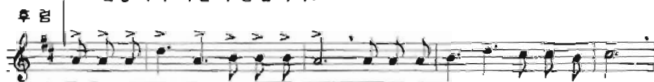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들는 중에
3.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약간 저음역이지만 역시 힘 있게
찬송합니다.
(등실~ 등실~ 하는 듯한 느낌)



이 세 상 에 서 내 영 혼 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다
천 사 들 왕 래 하 는 것 과 하늘의 영광 보 리 로 다
세 상 과 나 는 간 곳 없 고 구속한 주 만 보 이 도 다

후렴은 특히 더욱 한음 한음이 모두 힘 있게
찬송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것이 나 의 간 중 이 요 이 것이 나 의 찬 송 일 세

더욱 진정된 믿음의 고백으로서
불려져야 할 가사입니다.

흥겨운 리듬의 마무리!



나 사 는 동 안 끊 임 없 이 구 주 를 찬 송 하 리 로 다 이 멘

들어가면서(서론)

5살과 7살 그리고 10살이 된 세 명의 귀여운 소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엄마의 관 뚜껑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고 함께 서 있습니다. 그 소녀들의 아빠는 여러 해 전에 그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고,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는 어떤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녀들을 고아원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가장 나이 많은 소녀가 목사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의 엄마를 멀리 데려가신 거죠?” 같은 날 이른 아침, 어떤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병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13살 짜리 아이가 큰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병실 문으로 들어왔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아이는 수술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죠?” 그날 신문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 가족을 죽이고 마을 아이들을 불에 집어넣는 테러리스트들의 만행이 실렸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도록 방치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세상은 언제나 가슴 아프고 끔찍스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진실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확실하게 배우셔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 존재함을 배운다.
- ② 절망 중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반응에 대해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고린도후서 1장 3절~11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 본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3절~4절 - '그는'(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② 5절 - '넘치는도다'(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역설)

③ 6절~7절 - '위로'(위로의 능력)

④ 8절~9절 - '하나님만 의뢰'(전적인 의탁)

⑤ 10절~11절 -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전적인 신뢰)

2. 다음주일 설교('절망의 한복판에서')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오는 고난' 단원을 읽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② '고난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감' 단원을 읽고, 찾아온 고난에 대하여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빌 4:6 ~9 참고).

③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 단원을 읽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설교 본문의 해당 단원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④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 단원을 읽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 ⑤ '천국을 소망함' 단원을 읽고, 절망의 한복판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일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할 때 사단과 그의 부하인 귀신은 강한 힘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야만 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함으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어두움 후에는 빛이 있고, 연약함 후에는 강건함이 있으며,
십자가 후에는 면류관이 있고, 두려움 뒤에는 소망이 있으며,
숨이진 후에야 영생이 있음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 ②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 ③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을 주소서.

2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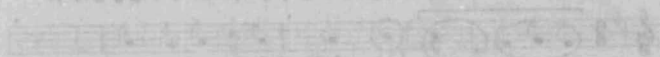
제목: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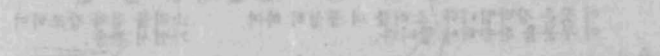
장흥 10월호

장흥 10월호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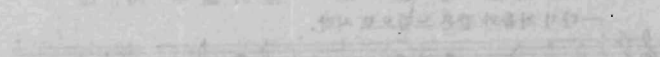
장흥 10월호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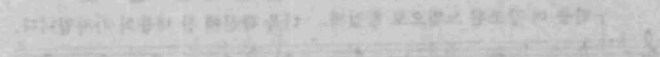
장흥 10월호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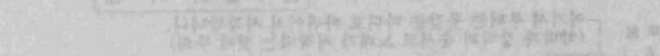
장흥 10월호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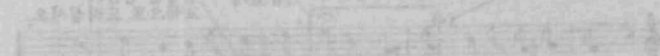
장흥 10월호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장흥 10월호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장흥 10월호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장흥 10월호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제 4 과

은혜와 평강

• 찬송 / 406장(내 맘이 낙심되며) • 본문 / 엡 1:1~2

보통으로 ♩ = 76 — 한 마디를 이와 같이 두 박으로 하여 찬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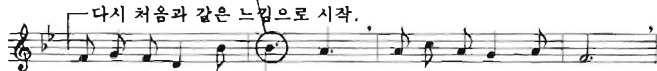


1. 내 맘 이 낙 심 되 며 근 심 에 눌 릴 때
2. 희 망 이 사 라 지 고 친 구 날 버 릴 때
3. 번 민 이 가 득 차 고 눈 물 이 흐 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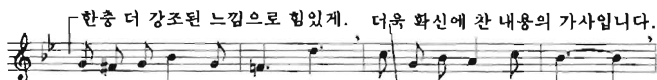
이 곳은 강박입니다. 소리를 더 풍성히 하여 소리를 점차 강조하여
이 부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가면서 찬송.



주 께 서 내 게 오 사 위 로 해 주 시 네
주 내 게 속 삭 이 며 새 회 망 주 시 네
주 니 의 결 에 오 사 용 기 를 주 시 네



가 는 길 캄 캄 하 고 괴 로 움 압 으 나
싸 음 이 맹 렬 하 여 두 려 워 떨 때 에
환 난 이 닥 쳐 와 서 슬 픔 에 잠 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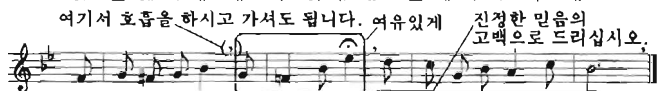


주 께 서 항 께 하 며 내 짐 을 지 시 네
승 리 의 왕 이 되 신 주 음 성 들 리 네
주 님 의 능 력 임 어 원 수 를 이 기 네

부 록 — 여기서부터는 못갖춘 마디로 바뀌어서 시작합니다.
(약박과 강박의 순서로 노래가 시작되는 것에 주의)



그 은 혜 가 내 게 족 하 네 그 은 혜 가 족 하 네



이 괴 롭은 세 상 니 지 날 때 그 은 혜 가 족 하 네

들어가면서(서론)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가장 먼저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과 인연을 맺은 것은 2차 선교여행 때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나로 방향을 돌렸고(행 16:6), 2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에베소를 경유해서 오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았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였으며, 결국 3차 선교여행 때에 에베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2년 정도 머물면서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행 19:8~10).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도 그들을 향한 믿음의 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매우 탁월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배우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바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배운다.
- ②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에베소서 1장 1절~2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 본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1절a - '바울은' (바울의 직분에 관한 사실)

② 1절b - '성도들, 신실한 자들' (지리적, 영적 수신대상자들)

③ 2절a -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의 근원)

2. 다음주일 설교('은혜와 평강')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삶' 단원을 읽고, 사도 바울의 회심 전(前)의 모습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만 말해 보십시오.

②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단원을 읽고,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자유롭게 말해 보십시오.

③ '죄인들에게 임한 동일한 은혜' 단원을 읽고, 자신이 죄인인 이유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말해 보십시오.

④ '죄인에게 전가된 의(義)' 단원을 읽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됨' 단원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실패와 승리', '고난과 영광'이라는 역설적인 두 가지 면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두려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지극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값없이 주신 은혜로 신실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였으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후에는 어떤 변화와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나를 부르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소서.
- ②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 ③ 죄인을 의롭다하시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소서.
- ④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고난과 영광을 믿게 하소서.
- ⑤ 바울처럼 주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1월 26일

제목 :

본문 :

換得 10 斗

제 5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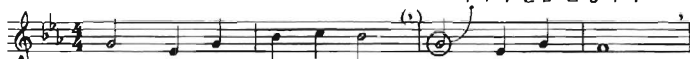
주의 만찬

• 찬송 / 284장(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고전 11:23~26

*이 찬송은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을 갖고 부드럽게 이어서 찬송합니다.
(무거운 느낌이나 지나치게 느린 템포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조금 빠르게 J. 100

가사의 발음 분명하게



1. 주	예	수	해	변	서	떡	을	때	시
2. 생	명	의	말	씀	인	나	의	주	여
3. 내	주	여	진	리	의	말	씀	으	로
4. 성	령	을	내	망	에	보	내	서	서

가사의 운율에 유의하세요.



무	리	를	먹	이	어	주	심	갈	이
목	말	라	주	님	을	찾	나	이	다
사	슬	에	영	매	인	날	폴	으	사
내	어	든	영	의	는	발	히	시	사

점점 세게 찬송하며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음정이 낮아지자 함께 주의



영	생	의	양	식	을	나	에	게	도
해	변	서	우	리	를	먹	임	갈	이
내	망	에	평	화	를	누	리	도	록
말	씀	에	강	추	인	참	진	리	를

*절정: 힘차게

여기도 가사의 운율에 유의



풍	족	히	나	누	어	주	을	소	서	차분하게 마무리
갈	급	한	내	어	주	을	소	서		
영	원	한	생	령	채	을	소	서		
개	을	아	알	을	하	을	소	서		

돌어가면서(서론)

주의 만찬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주께” 만찬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셨을 때,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상태였었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말할 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맺은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주의 만찬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밀 가운데 하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었듯이, 아무쪼록 돌아오는 주일에 행해지는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성찬에 대하여 바울이 받은 교훈을 알아본다.
- ② 성찬식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고린도전서 11장 23절~26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 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 본문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23절 - 전한 것, 받은 것

② 24절 - 내 몸

③ 25절 - 이 잔

④ 26절 - 때마다

2. 다음주일 설교(‘주의 만찬’)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그리스도와 바울의 교제’ 단원을 읽고, 바울이 그리스도와 맺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교제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② ‘바울이 받은 만찬의 교훈’ 단원을 읽고, 떡과 잔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③ ‘너희를 위한 것’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찬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④ ‘주를 기억하는 것’ 단원을 읽고, 여러분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
- ⑤ '새로운 언약의 기초' 단원을 읽고,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 기도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진실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은 우리의 축복된 소망입니다. 진실로 그의 죽으심으로부터 구원이 옵니다. 참으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축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롬 5:9). 아멘.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딤후 2:13).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찬식에서 예수와 만나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 ②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 ③ 성찬의 시간이 선교적 결단을 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 ④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한 죽으심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소서.
- ⑤ 성찬을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와의 연합이 있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3년 2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장 훈(1-5일), 임현덕(6-10일), 이희식(11-16일),
최종철(17-22일), 하종철(23-28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